



호남선 개통 3년

# 市·道民 1인당 2.5번 탔다

다음달 1일 개통 3주년을 맞는 KTX 호남선의 질주가 눈부시다. 올 들어 하루 평균 이용객이 1만 명을 넘어섰으며, 4월 중 누적 이용객 1천만 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KTX는 그동안 광주·전남지역 민의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3시간 남짓이면 서울에 갈 수 있어 서울 나들이가 한층 잦아졌다. 병원진료·쇼핑·교육·공연 관람 등 이유도 각가지다.

▷KTX 호남선이 남긴 기록들  
 총이용액: 899만3천295명  
 1천만명 돌파시기: 4월 중순  
 총수입: 272억2천만원

▷KTX 개통 3년 기록들  
 총수입: 2조7000억원  
 1일 평균 수입: 24억8000만원  
 1일 최대 수입: 47억4700만원(07.02.19)  
 총 운행 거리: 5889만5060km  
 지구둘레 428km 1472바퀴  
 지구~달(38만km) 77회 왕복거리

= KTX는 서울까지 가는 지역민들의 교통수단을 크게 바꿔놓았다. 광주공항 국내선 이용객은 지난 2001년 223만642명에 달했으나 KTX 개통 이후 ▲2005년 152

고 갔으나 지금은 한 달에 두 차례 KTX를 이용한다. KTX 운임이 비행기의 3분의 2가량에 불과한데다, 3시간 남짓이면 오갈 수 있어 비행기보다 편하기 때문이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정승현(30·서구 농성동)씨는 KTX를 이용해 서울 노량진에 있는 학원에 다닌다. 서울에서 열리는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직장별로 서울로 출장을 가기 위해 KTX를 이용하는 시민도 크게 늘고 있다. 지역 의료계에서는 '분당 서울대 병원'은 KTX를 이용해 수도권으로 진료를 가려는 광주사람을 위한 병원'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을 정도다.

◇호남고속철도 조기착공 시급 =호남고속철도 조기착공과 완공이 시급한 과제다. 이용객이 급증함에 따라 당초 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조기 착공에 반대했던 일부의 주장이 잘못됐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국철도공사 광주지사 관계자는 "2017년까지 호남선 전 구간에 대한 고속철 공사를 완공할 계획이지만, 아직 이렇다할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역 민들의 KTX 이용 증가세가 예상보다 빠른 만큼 지역 내에서도 조기 착공 여론이 거셀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종형 기자 galee@kwangju.co.kr



##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요

삼성화재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29일 오전 광주 운남초등학교 1학년 생들을 대상으로 안전하게 신호등 건너는 방법 등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삼성화재는 이날 1학년생 287명에게 교통안전용 노란 조끼를 선물했다.

/나명자기자 mjna@kwangju.co.kr

# 광주서 중·고생 25명이 여중생 1명 집단 성폭행

같은 동네에 사는 여중생 1명을 수 명의 짝을 지어 성폭행한 중·고교 남학생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은 29일 광주 모고등학교 1학년 A(16)군 등 고교생 19명과 중학생 6명을 성폭력범죄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8월 친구 소개로 알고 지내던 광주 모중학교 3학년 B(14)양을 복구의 한 초등학교 화장실로 불러내 처음 성폭행했으며, 이어 11월에는 B양을 자신의 친구 C

(16)군의 집으로 불러 친구 6명과 함께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군 등은 "성폭행 사실을 친구와 가족들에게 알렸다고 협박해 B양을 수차례에 걸쳐 친구 4~5명과 함께 학교 화장실·빈 건물 화장실 등에서 삼중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 등은 또 이 같은 사실을 같은 동네 친구 D(16)군 등에게 소문을 내 D군도 B양에게 접근, 친구들과 B양을 수차례 성폭행해 왔던 것으로 경

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B양은 이들에게 시달리다 최근 괴로운 심경을 친구에게 털어놓았으며, 이 친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군 등의 범행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B양은 현재 성폭행을 당한 충격으로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며, 범행 가담 정도가 큰 A군 등 7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서울까지 출퇴근·학원 수강 호남고속철 조기 착공 과제로

돌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전남 330만명이 1인당 평균 2.5회 이용한 셈이다. KTX이용객은 첫 해 174만5천741 명에서 2005년 306만652명, 2006년 353만8천698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은 첫 해 3천239명에 불과했지만, 지난 2월 말 현재 1만987명을 기록하는 등 올 들어 1만 명 시대로 접어들었다.

만2천30명 ▲2006년 139만816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줄고 있다. 광주~서울 간 항공편은 2004년 하루(편도) 10편이었으나 올 현재 8편으로 감축됐다.

광주사람들의 서울 나들이도 한층 수월해졌다. 광주시 서구 관천동 금호월드에서 컴퓨터 부품 판매업을 하고 있는 김우석(39·북구 두암동)씨는 KTX 개통 전까지만 해도 물건을 사기 위해 한 달에 한 번꼴로 비행기를 이용해 서울을 오

/이종형 기자 galee@kwangju.co.kr

## 광주 노래방 연쇄 강도 용의자 최면 수사로 얼굴 몽타주 작성

최면 수사를 통해 광주지역 노래방 연쇄 강도 사건의 용의자 전체 얼굴이 드러난 첫 몽타주가 나왔다. 경찰은 지난 27일 오후 6시부터 두 시간 동안 광주 북부경찰서 진술 녹화실에서 이번 사건용의자를 자세히 목격한 A씨를 상대로 최면수사를 실시했다. A씨는 10건의 강도 사건 중 가장 최근(3월26

일)에 발생했던 동구 수기동 S노래방 출입구에서 용의자와 마주친 목격자다. 북부서 영기회(36·과학수사반) 경사가 "몸이 편안해집니다~"는 등 내용의 '최면 유도문'을 읽기 시작한 뒤 1시간30분여, 깊은 잠에 빠진 A씨는 "큰 입에 코는 오톱하고, 윤기나는 검은색 겔옷과 안에는 회색 웃옷 입었다"며 "정바지



에 검은색 신발을 신었고 오른 쪽 귀밑에는 점이 있다"고 인상착의를 하나 하나 설명했다.

A씨는 또 "용의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주차된 옛날 봉고차 근처를 서성거리고 있다"며 "차량 번호는 2와 6으로 끝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에는 국과수에서 최면 수사법을 교육받은 2명의 경찰이 있으며, 최면 시간은 한 사람당 1~2시간이 소요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경찰은 여성 수배자 성폭행

### 대구 경찰, 광주에서

광주 북부경찰은 29일 수배 중인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대구 달성경찰 소속 장모(37) 경장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장 경장은 지난 28일 오후 4시경 광주시 북구 오치동에 서 사기 혐의로 수배중인 광주 모 치과 간호조무사 이모(여·25)씨를 검거, 하루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술을 마시고 성폭행한 혐의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남자친구 명의로 콘택트를 개설한 후, 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100만원을 몰래

빼다가 광주 남부경찰의 수배를 받았다. 장 경장은 기소중지자 검거에 나섰다. 이씨의 소재를 파악, 동료 주모(42) 경사와 함께 광주에 왔다. 장 경장은 그러나 이씨를 차에 태우고 다니며 주 경사 등과 술을 마셨으며, "확인할 게 있다"며 29일 새벽 5시경 이씨 집을 함께 찾았다가 성폭행했다. 장 경장은 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곡지구대 직원들에게 붙잡혔으나, 피해자 이씨는 조사 과정에서 "합의가 됐다"며 고소를 취했다.

/이종형 기자 galee@kwangju.co.kr

## 최고 年 890% 고리 사채 39명 적발 1명 구속

전남지방경찰청은 30일 광주·순천·여수·전주 등지에서 서민들을 상대로 급전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은 26개 사금융업체 39명을 적발, 김모(30)씨를 대부업의 등록 등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38명을 불구속했다. 김씨 등은 2005년 3월부터 영세자 영업자 등 455명을 상대로 모두 8억4천여만원을 빌려주고 30~80일간 일수 형식으로 1만~6만원씩 돌려받는 조건으로 연 190~890% 안팎의 이자를 받아 3억7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나원침 (7090) 김장동



광주광역시 중구 동구계림동에서 정모(여·61)씨가 30만원 상당의 고품질 텀 가방을 오토티바이를 탄 남자에게 날치기당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계림동서 오토바이 날치기

지난 28일 오후 8시25분경 광주시 동구 계림동에서 정모(여·61)씨가 30만원 상당의 고품질 텀 가방을 오토티바이를 탄 남자에게 날치기당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상자 속 1천만원 8개월 간 몰랐다?

○선물로 받은 도자기 상자 속에 현금 1천만원이 들어 있는 지를 "8개월 동안 몰랐다"는 현지 군수 부인의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 ○전남지방경찰청은 29일 "감사원이 '해남군 공무원 K씨(가명)가 지난해 7월 6급으로 승진한 데 대한 대가로 1천만원을 도자기 상자에 담아 군수 부인 C씨에게 전달했다. C씨는 이를 시인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군수 부인 C씨는 "K씨에게 받은 상자를 부엌 방에 보관했는데 최근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조이트레블

www.joy-travel.net

111-0115 광주광역시 동구 동천동 23-3 3층 333호  
 대표: 061-204-3222 (02)234-3043

### ★키벨리아 조도기 상품★

「일본 귀족 여행」 4박 5일 여행 **₩170,000**  
 대자연의 아름다움 만끽! 동해안 최남단 동해시 3박 4일  
 4박 5일 여행 **₩110,000**

「우천상품1」 (전남·북부권 여행) **₩110,000**  
 동해안 3박 4일 여행 **₩110,000**

「우천상품2」 **₩110,000**  
 동해안 3박 4일 여행 **₩110,000**

### 본소단위 판매하는 일사하체 여행

도시카나라 3박 4일 여행 **₩110,000**

4박 5일 여행 **₩110,000**

### 광주출발 중국여행

1. 광둥/소주/항주/우가차 4박 5일 **₩390,000**  
 4박 5일 여행

2. 상해/항주/항가제본가제 5일 **₩110,000**  
 4박 5일 여행

### 「여행」

4박 5일 여행 **₩110,000**

4박 5일 여행 **₩110,000**

### 「여행」

4박 5일 여행 **₩110,000**

4박 5일 여행 **₩110,000**

### 「여행」

4박 5일 여행 **₩110,000**

4박 5일 여행 **₩110,000**

### 「여행」

4박 5일 여행 **₩110,000**

4박 5일 여행 **₩110,000**